



# 이세돌, 14개월째 한국랭킹 1위

지난달 9승2패…2위 이창호와 점수차 더 벌려

괴력의 강동윤 3위…박영훈은 3계단 오른 5위

**■2008년 12월 한국 랭킹 순위**

순위	기사명	랭킹	점수	변동
1위	이세돌	1만천674	-	+291
2위	이창호	1만4천049	-	+145
3위	강동윤	1만천651	1	+420
4위	박영훈	1만천530	+1	-184
5위	박영훈	1만천886	1 3	+148
6위	원성진	1만천884	1 1	+114
7위	박정상	1만천821	+1	+59
8위	조한승	1만천732	1 3	+192
9위	최철한	1만천526	-	-7
10위	총성지	1만천431	-	+96

이세돌 9단이 14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세돌은 지난달 한달 동안 9승 2패의 성적으로 총점 1만4천674점을 획득해 이창호 9단(1만4천049)과의 점수차를 지난 달(479점차) 보다 더욱 벌리며 랭킹 1위 자리 를 굳건히 했다.

이세돌은 현재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진출과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4강에 올랐다. 국내 무대에서도 고른 활약으로 제52기 국수전 도전기(복진석에 2-0리드), 제13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강동윤에 0-1), 제36기 명인전 결승(VS 강동윤)을 치르고 있어 다수의 타이틀을 획득과 랭킹 1위 독주가 예상된다.

또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4기 원의배 십단전 본선 3회전 마지막 대국에서도 이세돌은 최첨단 9단에게 199수만에 불 계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반면 이세돌은 턱밑까지 추격했던 이창호는 구리 9단에 패하며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진출이 좌절된 데 이어 이세돌과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8강전에서도 패점을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랭킹 10위권 내선에 강동윤 8단의 선전이 눈부셨다. 강동윤 8단은 이세돌 9단과의 맞대결이 펼쳐진 제13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1국에서 선승을 거둔데 이어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결승 진출과 제10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본선 5연승으로 랭킹 발표 후 자신의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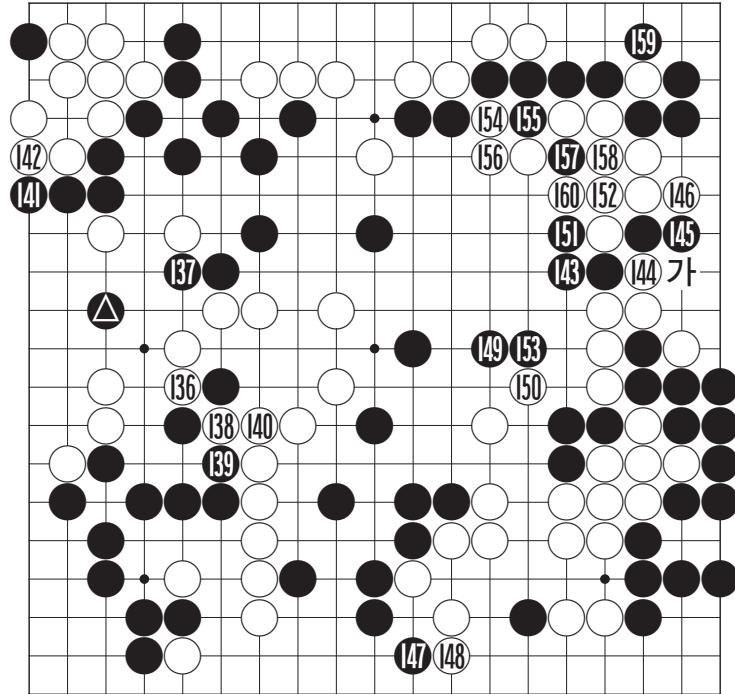
이밖에 지난달 8위까지 뛰어졌던 박영훈 9단은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4강과 제13기 GS칼텍스배 도전기(원성진에 2-0리드)에서의 선전으로 3계단 뛰어 오른 5위를 기록했다. 최근 각종 기전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는 원성진 9단이 6위를 차지하며 한계단 상승했다.

여자기사 중에는 조혜연 8단(84위)이 박지은 9단(88위)을 밀어내고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초단 기사중에는 이춘규 초단이 제4기 원의배 십단전 8강에 진출하며 28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8월 처음 시행된 한국기원 프로기사랭킹제는 매달 1일 발표되며, 산정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성적을 집계, 대국 획득 점수, 기전 가중치, 기전 인정률에 따라 점수화 하여 랭킹 50위까지 발표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알미운 후퇴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여성부 결승전 7보 (136~160)  
白 조경진 5단 黑 박지선 5단  
(경기도)



현재의 형세는 흑이 따라붙었다고 해도 딴판이다. 그런데 조경진 5단이 이 수를 보더니 시간을 최대한 쓴 다음 알립게도 백 136으로 물러서 버리고 마는게 아닌가. 박지선 5단이 잔뜩 힘을 주고 있다가 맥이 풀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백 두점을 양보해도 충분히 이겨 있어서 분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백 134로 끊어왔을 때 흑이 155, 157로 반항한 것이 마지막 항거. 박지선 5단은 159로 이어져서 버릴려다가 159로 따내 물러서고 말았는데 이 수로 160에 이어도 백 '가'로 잡아서 별 수가 없다.

이 바둑은 이후에도 200여 수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승부는 결정되었으므로 이후는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억대 바둑판’ 소송

### 결국 유족이 이겼다

법원 “판매대금 유족에 돌려줘라” 항소심 기각

부산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8일 김모 전 부산 바둑협회장의 유족이 프로기사 A(50) 9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바둑판 판매대금을 김씨의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4년 7월 간암으로 숨지기 한 달 전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 하던 고가의 바둑판 두 세트를 A씨에게 맡기며 매각을 부탁했다.

한 세트는 조훈현 9단의 소개로 일본에서 산 비자나무 바둑판 세트로 우침위안(吳清源) 기사가 서명해 ‘우침위안반 세트’로 불렸으며, 다른 세트는 세고에 겐

사쿠(瀬越憲作) 기사 및 일본 대신들이 서명한 ‘세고에반 세트’로 유명한 제품이다.

A씨는 2005년 세고에반 세트를 한 일본인에게 1천만 엔에 팔았으나 매각대금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A씨가 2006년 11월 우침위안반 세트만 돌려주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김씨가 A씨에게 바둑판 세트 매각을 위임하고 그 대금을 가족들에게 넘겨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매대금 1천만엔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제기한 우침위안반 세트 중 바둑알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을 계산할 기초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프로기사 75% “상금제 도입 찬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기사 중 75%가 상위 입상자에게만 상금을 주는 상금제를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한후 상금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상금제가 도입될 경우 대국료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어 64강 이내에 들지 못한 기사들은 대국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위 펙커들은 지금보다 상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리는 노장 기사들은 사실상 대회 출전에 따른 수입이 거의 없게 된다.

한국기원 기사회(회장 조대현 9단)는 5일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프로기전의 상금제 도입’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8세 이상 프로 기사 163명이 투표에 참가해 124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 34명이 있으며 기권은 5명.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제기한 우침위안반 세트 중 바둑알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을 계산할 기초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근 바둑 인구가 줄고 기전이 축소되는 등 바둑계 주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짐에 따라 재한된 기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전의 활성화를



지난 9월30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상금제 도입에 관한 공개 토론회 모습.

〈사이버으로 제공〉

### 기사회 찬반 투표…64강 이내만 대국료 지급

### 노장 기사들 반대·절차상 문제 등 ‘논란’ 예고

화를 피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대다수 노장 기사들은 사실상 대국료 수입이 전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크게 반대해왔다.

한국기원도 “이번 투표가 당일에 완료되지 못하고 기사총회 당일이 아닌 26일과 27일에도 진행이 돼 투표 절차에 인한 혼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투표 자체가 상금제 도입을 받 아들이는 수순이 아닌 기사들의 의견 입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투표결과에 대해 향후 프로바둑계 전체에 걸친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한 국가원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벼랑 끝 반격’ 야마시타, 장취 꺾고 1승2패

### 일본 왕좌전 3국

야마시타 게이고 9단이 벼랑 끝에서 반격을 시작했다.

야마시타는 지난 1일 일본 카나가와 타이노에서 열린 제56기 일본왕좌전 도전5번기 3국에서 도전자인 장취 9단을 맞아 282수 만에 5집반을 거두며 종합전적 1-2로 따라붙었다.

야마시타는 도전 1, 2국을 모

두내주고 벼랑 끝에 물렸는데 이 날 대국에서는 초반 좌변과 상변에서 실리를 확보하면서 자신감 있는 행미를 보였다. 장취는 상변 패싸움과 끝내기에서 추격전을 펼치며 역전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으나 역전에는 실패했다.

계속되는 도전 4국은 오는 8일 열린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이며, 우승상금은 1천350만엔.

/오광록기자 kroh@

##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 펠리스 타워 임대

수완지구 25,000세대 아파트 입주시작

층	면적	권장업종
1층	15평~200평	금은방, 안경, 커피숍, 약국, 제과점 등 판매시설
2층	200평	페미리식당, 병원, 단란주점, 노래방
3~6층	각200평	병·의원, 학원, 도서실등
7층	200평	휘트니스 클럽
8층	50평	스카이 라운지

\*면적 15평 부터 분할 가능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62) 954-0031  
분양사무실 010-7723-1033

##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휴 016-632-5659

(총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려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기·감정가 70%인하

※광장 담당 팀장이자 14년 경력 933 평방기 6

의 7년 경력 3억 6500 평도 3의

※금동로 237번지 1462평 4층 6천 일

부는 공실 1462평 5월 2635만원 평도 41의

※금동 고속터미널 1000평 10000000원

건평 367 평면에 15평에 매입평 8평으로

※동광동 200평 922평 매도 90평

※동광동 1000평 10000000원

※동광동 1000평 10